

중심대화: <보아스-룻>

룻기 2장 8-16절 말씀

첫번째 대화

- 08 ○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
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
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
- 09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
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
목이 마르거든 그룻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
- 10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
나는 이방 여인이거늘
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

두번째 대화

-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
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에게 행한 모든 것과
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
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
- 12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
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
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
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
- 13 룻이 이르되
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
나는 당신의 하녀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
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

세번째 대화

- 14 ○식사할 때에
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
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찌으라 하므로
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
그가 볍은 곡식을 주매
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
-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
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
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
- 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
꾸짖지 말라 하니라